

중한문화교류총서 中韩文化交流丛书  
중앙민족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北京高等教育精品教材

# 중한 번역 이론과 기교

태평무 저

민족출판사



중한문화교류총서 中韩文化交流丛书  
중앙민족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北京高等教育精品教材

# 중한 번역 이론과 기교

태평무 저

민족출판사

책임편집: 고종광

책임교정: 계 향

표지설계: 리 봉

출판발행: 민족출판사

주 소: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홈 페이지: <http://mzpub.com>

인 쇄: 북경채운룡인쇄유한회사

판 매: 각지 신화서점

출판회수: 2016년 5월 제1판 2016년 5월 북경 제1차 인쇄

절 지: 787mm×1092mm 1/16 자수: 392천자

전 지: 28.25

값: 42.00원

ISBN 978-7-105-14369-6/H·1015(조110)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편집실전화: 58130505; 발행부전화: 6421173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韩翻译理论与技巧 / 太平武著. —北京: 民族出版社, 2016.5  
ISBN 978-7-105-14369-6

I. ①中… II. ①太… III. ①朝鲜语—翻译 IV. ①H555.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6)第123558号

责任编辑: 高钟光

责任校对: 桂 香

封面设计: 李 峰

出版发行: 民族出版社

地 址: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网 址: <http://mzpub.com>

印 刷: 北京彩云龙印刷有限公司

经 销: 各地新华书店

版 次: 2016年5月第1版 2016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 787毫米×1092毫米 1/16 字数: 392千字

印 张: 28.25

定 价: 42.00元

ISBN 978-7-105-14369-6/H · 1015(朝110)

该书若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05; 发行部电话: 64211734

## 서 문

이 총서의 출간은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세계적인 프로젝트로서 2011년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대양주 11개 나라의 18개 대학교가 참여하였다. 참여 대학교로는 미국의 워싱턴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남가주대학교; 영국의 런던대학교;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보쿰대 컨소시엄; 네덜란드의 레이덴대학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프랑스의 파리 컨소시엄; 체코의 프라하찰스대학교; 중국의 중앙민족대학교, 남경대학교, 연변대학교, 중국해양대학교, 중국문화대학교(대만) 등이 있다.

중앙민족대학교는 조선-한국학연구센터와 조선언어문학학부가 2007년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당해에 예비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정식 선정되었다.

중앙민족대학교 조선-한국학연구센터는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조선언어문학학부와 교내 기타 학부의 한국학 관련 연구자 및 교외 한국학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연구센터 산하에는 6개의 연구 소조를 두어 민족학, 사회학, 문화,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언어, 문학, 예술 등 한국학 제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센터에서는 매년 ‘조선-한국학연구’라는 이름으로 1권의 논문집을 출간하여 지금까지 20권에 이르렀다. 연구센터에서는 또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논문집을 출간하였다.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부의 전신은 1972년에 설립된 조선언어문학학과이며 1995년에 조선언어문학학부로 승격되었다. 탄탄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언어문학학부는 국가중점학과의 하나이며 중국 기초과학인재양성 및 과학연구기지의 하나이다. 현재 조선언어문학과 중한경제무역번역 두 개의 학부 전공 방향을 설치하고 있으며 조선어-한국어연구, 조선-한국고전문학연구, 조선-한국현대문학연구, 조선-한국당대문학연구, 중국조선족문학연구, 조선민족민속문화연구 등 6개의 석사 연구 방향과 언어대비와 번역이론연구, 조선-한국고전문학연구, 조선-한국현대문학연구, 중국조선족문학연구 등 4개의 박사 연구 방향을 설치하고 있다. 조선언어문학학부는 또한 비교적 구전한 조선-한국 학자료실을 갖고 있다. 자료실에는 조선-한국학 관련 도서 2만여 권과 다양한 시청각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교수와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민족대학교에서 한국학과 관련되는 부서로는 또 한국어학부(2003년에 한국어학과로 설립되어 2009년에 한국어학부로 승격되었음, 현재 한국어 관련 학부생과 석사생을 양성하고 있음), 한국문화연구소,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중국소수민족문학연구소 등이 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수행 기한은 5년이다. 중앙민족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에서는 이사이 조선-한국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교내의 한국학 관련 학부·연구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학(조선학) 관련 국내·국제 학술

회의와 북경 지역 한국학 관련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개최, ‘중한문화교류총서’와 한국학 연구 논문집 출간, 한국학 관련 후학 양성 연수회, 중·고등학교 조선어문 중견교사 연수회 조직, 국내외 한국학 석학 강의·특강·계열 강좌, 한국학 정품·우수 교과목과 교재 건설, 한국학 자료 건설, 국내외 한국학 관련 대학·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및 파트너 관계 확립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민족대학교의 한국학 교수와 연구 수준 및 학술교류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중국에서 명실상부한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이러한 사업은 북경 지역 나아가서는 전국에서의 한국학의 심화 발전에 기여하고 중한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추진시킴으로써 또한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각 나라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도 추동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사업단에서 기획한 ‘중한문화교류총서’에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언어, 문학, 예술 등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총서의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다년간 해당 분야의 교수와 연구에 종사해 온 학자, 교수들로서 말은바 연구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한국학 제 분야의 개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한국학의 심층 보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총서의 출간이 중국에서의 한국학의 심화 발전과 중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동북아 각국의 우의 증진 및 조화로운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1년 8월

중앙민족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

##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1992년 6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출판되었던 저서 『한조 번역리론연구』가 다시 중앙민족대학출판사에서 『한조번역리론과 기교』로 수정 출판되고 2003년에 재판되었으며 1999년에 한국 신성출판사에서 『중국어 번역 이론과 기교』로 수정 출판되고 다시 2006년에 서울 출판사에서 재판되었다. 번마다 수정판을 낼 때면 그나마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고마움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기도 한다. 특히 2005년에 본 저작이 북경시고등교육정품교재로 선정되고 이번에 민족출판사에서 다시 개정 재판을 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며 보다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서 번역 이론 연구와 교육에 적으나마 기여하려는 것이 본인의 간절한 마음이요 학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학문 융합의 세기로 특징지어가는 21세기는 또한 IT와 문화의 결합으로 문화산업의 세기로 이름 지어 가기도 한다. 사회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치의 다극화, 문화의 다원화 그리고 정보의 사회화로 오늘의 시대는 어느 때와 달리 그 누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그것을 얼마나 빨리 장악하고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체에 응용하는가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어느 누구의 연구 성과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 인류의 공동 성과로 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 고속도로가 이미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유 방식을 깨뜨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그리고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보의 응용 범위와 전달속도가 이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가 그에 적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정보 시대의 이와 같은 정보 교환이나 지식의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번역 사업이다.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되어 가고 있는 오늘 외국어 학습과 번역을 떠나서는 각 민족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나라의 발전도 사회의 진보도 상상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매 시각 입수하고 있는 각종 뉴스와 과학 기술 정보는 그 어느 하나도 번역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번역은 이미 인류 활동의 모든 영역 이룰테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군사, 외교, 예술, 스포츠 등 제 분야에 거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번역을 떠날 수 없다. 때문에 역자는 세계적 언어 장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문화와 학문 등의 중개자로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존경과 경탄을 전달하는 국가 간의 심부름꾼'으로 불리우고 있다.

번역은 한낱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다.

일찍 중국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전파, 서방 과학 기술과 문명의 도입, 그리고 개혁 개방 시기의 현대 과학 기술과 경제 관리 면에서의 새로운 발전 모델, 지식 경제의 실현과 정보의 산업화 모두가 번역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어느 하나도 성스러운 번역 사업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학은 제1생산력이요, 번역은 제1생산력을 안받침해주는 가장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번역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기꺼운 성과를 거두어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번역 사업에 대한

중시가 역부족이며 설사 번역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자기의 진지한 직업으로 삼아 노력함이 부족하다. 그 이론에 대한 연구 사업도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어 번역 이론 연구에서 보면 『중국어문번역에 관하여』(최기천, 1984), 『한조번역리론연구』(태평무, 1992), 『한조번역리론과 기교』(태평무, 1998), 『중국어번역기초리론』(장의원, 1999),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이용혜, 2002), 『중한번역 교정』(주석봉, 2006), 『中韩翻译教程』(장민·김선희, 2008), 『汉朝朝汉翻译基础』(김영수, 2008), 『韩汉翻译基础』(柳英绿, 2009), 『중한번역교육론』(주옥과, 2007) 등 저서들이 있고 한중 번역 이론 연구에서 보면 『朝汉翻译理论与技巧』(한동오, 1994), 『朝汉诗词翻译』(한동오, 1995), 『韩中翻译教程(第二版)』(장민·김선희·박광혜, 2008) 등 저서들이 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손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번역 이론 연구 일꾼들과 역자들에게 하나의 고무로 되는 것은 유네스코의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과 문화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외국 서적들을 자국어로 번역하며 번역 이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기들의 학문 분야에 신심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접 과학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정보 과학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온 사회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 사업은 우리를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놔두지 않으며 현 상태로 눌러두지도 않을 것이다. 사회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방법과 이론으로 번역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현실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정세 하에서 중국어 번역에 대한 이론 연구

를 시도함으로써 될수록 중국어 번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번역이란 실천성이 강한 학문으로서 의미론의 응용분과로 볼 수 있으며 응용 언어학에서의 대비언어학의 시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적지 않은 번역 일꾼들은 번역의 학문적인 토대나 이론에 그리 접해 보지 못한 순수한 경험, 즉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하여 사회적으로 번역 이론보다 실천을 더 중시하고 지어 번역에는 이렇다 할 이론이 없으며 일종 기술이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설사 이론이 있다 해도 그것은 경우에 따라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리한다는 식의 경험적인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크게 없는 줄 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번역이란 바로 한 언어로 된 사상을 다른 한 언어로 옮겨 놓는 언어 문자 활동이다.

현대 과학으로서의 정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교제 과정에 사상을 전달하여야 하고 그러자면 또 사상 전달의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달의 도구가 바로 언어이고 그 전달되는 사상이나 내용이 바로 정보이다. 언어 문자는 사회 정보를 담는 기호 체계로서 민족마다 각기 자기의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제의 과정은 바로 정보를 수출하고 접수,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자면, 즉 정보가 전달되자면 원 기호 체계를 다른 한 가지 체계로 바꾸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 기호 체계에로의 전환 과정이 바로 정보론에서 말하는 번역이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바로 번역 현상에 대한 정보론적인 해석이다. 현시대의 번역 이론은 보다 과학적인 이론으로 번역 목적론과 충실성을 결합한 출발어의 사유 형식과 목적어 사유 형식과의 입체적인 전환 관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저서의 집필에서는 어느 한 이론 체계에 구애되지 않고 선인들이 이룩한 기성 성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분별있게 처리하였다.

본 저서의 특색이라면 전통적인 서술 방법을 벗어나 정보 이론을 주선으로 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와 특징을 대비 분석하면서 그 문법적 대응 관계를 사유 형식의 전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나중에 두 언어 사이의 구조 전환 관계와 번역 수법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그 체계와 방법론에서 현대적인 언어 이론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그 번역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이론적인 해석에 과학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사유의 입체성과 번역에서의 입체적인 대응 관계, 동태적인 측면에서의 번역 표준의 설정과 장면정보와 문자정보의 호상 전환으로서의 번역에서의 증가와 생략의 원리, 번역에서의 문장 성분의 전환 관계, 중심어와 수식어와의 위치 관계, 문체론적인 수법에서의 여러 가지 처리 방식 등은 바로 번역에서의 새로운 이론적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저는 원래의 내용에 많은 것을 보완하여 체계성과 이론성을 더하였다. 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수정본에서는 언어와 사유의 입체적 관계로 번역의 본질을 새롭게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적 해석과 설명을 가하였다.

2.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번역의 약사를 새로 첨부하였다. 번역사는 국내외의 주요 역자들과 저서 및 번역 이론가들의 성과를 간추려서 귀납, 소개함으로써 직역과 의역의 사적 고찰을 시도했으며 최신 연구 이론까지 분석하였다. 우리의 번역 이론 연구의 기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번역의 개념과 특징 및 번역 표준을 기능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새로 해석하였으며 번역의 이론 문제들을 새로이 분석 고찰하였다. 정확 여부를 확신있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필자로서의 평시 생각을 피력하여 보았다.

4. 보다 새롭고 알기 쉬운 예문으로 원래의 부당한 예문들을 교체하였으며 새로운 이론적인 천명을 함과 동시에 그 이론적 깊이와 통속성을 보장하여 독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노력하였다.

5. 제2장 제6절 「번역에서의 단어의 차용」에서는 목전 우리 사회 언어 생활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외래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번역에서의 차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가하였다.

6. 제2장 제8절 「번역에서의 준말의 처리」는 다시 썼으며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서술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기하였다. 특히 표의 음절 문자인 중국어와 표음 음소 문자인 한국어, 표음 음소 문자인 러시아어나 영어와의 대비 속에서 그 언어들의 음성학과 의미적인 특징으로부터 준말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준말 구성의 이론적 근거를 안받침하여 주었다.

7. 제2장 제9·10절 성구, 속담, 혈후어의 특성과 번역에서의 그 처리방법은 새로 증가하였는바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중한(한중) 성구, 속담 및 혈후어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그들 대응 관계를 분석 귀납하였으며 번역에서의 그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8. 전반 서술 과정에 중한 두 언어의 어휘, 문법적 특성과 대역 관계를 이론적으로 천명하고 나중에 번역의 수법과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번역 이론을 배우는 학도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깨치고 번역 실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늘 수 있게 하였다.

9. 특히 본 수정본에서는 제3장 제3절 관형어들의 용언 활성화와 체언 활성화의 차이 및 중심어의 합성어화 하려는 인력은 새로 구상한 것인바 쟁의가 있으리라 보며 계속 연구할 바라고 본다.

10. 제4장 제2절 명명문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사유 관성의 법칙이라 하여 새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며 제5장에서의 원래의 장면 정보와 문자 정보의 2분법을 비유정보, 문자정보, 장면정보로 세분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하였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원래의 서술에 새로운 분석과 관점을 천명하였는바 동인들과 특히 후학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토론을 희망한다.

따라서 본 저서는 번역을 배우는 초학자로부터 이론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이상 중국어 교원들의 문법 교수와 번역 교수에도 도움이 적지 않으리라 기대되며 외국 유학생들의 중국어 공부와 대비 언어학의 연구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족점이 있으리라 믿어지면서도 이 분야에서 이론을 탐구하고 개척하여 그 연구의 앞길에 한 알의 자갈이라도 되어 우리 번역 이론의 연구와 발전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 바로 이 필을 들게 된 동기이며 이 결심을 익혀 온 동력이라 하겠다.

또한 이 연구 성과가 현실로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아름답고 비도 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시간적으로도 적지 않게 지연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에는 곡절도 많다는 말이 혹시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 사회가 합심이 되어 우리 번역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론 연구에 대한 자각성과 요구성을 높이며 우리의 번역 이론 연구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우리 민족 문화의 번영을 위하여, 21세기의 더욱 빛나는 앞날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번역계의 많은 선배들과 동후배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소중한 비판 지적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2015년 10월

# 목 차

제1장 번역의 일반적 개념 .....	1
제1절 번역의 기본 성격 .....	1
제2절 번역과 언어와 사유의 관계 .....	9
제3절 번역 이론 연구의 대상과 그 과업 .....	17
제4절 번역의 역사 .....	20
제5절 번역이론의 선행 연구와 번역 표준 .....	33
제6절 번역과정 .....	47
제2장 어휘 품사론적 현상의 대비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	66
제1절 어휘 품사론적 특징 .....	66
제2절 단어의 의미적 층차와 상관적 의미 .....	68
제3절 단어의 개념적 의미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	78
제4절 단어의 연관적 의미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	93
제5절 단어의 색채적 의미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	100
제6절 번역에서의 단어의 차용 .....	113
제7절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2음절 동의어의 식별과 그 번역 .....	129
제8절 번역에서의 준말의 처리 .....	135
제9절 성구, 속담의 특성과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	154

제10절	혈후어의 특성과 번역에서의 처리방법	184
<b>제3장</b>	<b>문법적 현상의 대비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b>	<b>200</b>
제1절	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사론적 특성	200
제2절	번역에서의 문장성분들의 전환	208
제3절	번역에서의 문장성분들의 위치적 전환	219
제4절	번역에서의 삽입어의 처리	244
제5절	번역에서의 대비적 관계에 놓여 있는 단문들의 위치적 전환	251
제6절	번역에서의 총괄어의 처리	268
제7절	번역에서의 종속 관계에 놓여 있는 단문들의 위치적 전환	270
<b>제4장</b>	<b>문체론적 현상의 대비와 번역에서의 처리방법</b>	<b>289</b>
제1절	문체론적 기능에 대한 일반적 고찰	289
제2절	번역에서의 일반 서술문제로의 명명문의 개편	293
제3절	번역에서의 일반 서술문제로의 무주어문의 개편	311
제4절	공통한 주어를 가진 복문에서의 문장 형식의 개편	316
제5절	번역에서의 중심 조직법에 의한 처리	322
제6절	번역에서의 반복수법의 처리	324
<b>제5장</b>	<b>정보론적 특징과 번역에서의 처리방법</b>	<b>330</b>
제1절	정보의 개념과 종류	330
제2절	정보론적 측면에서 본 번역의 기본 원리	333
제3절	비유정보와 번역에서의 처리	336
제4절	장면정보의 문자정보제로의 전환-번역에서의 증가의 원리	345

제5절 번역에서의 문자정보의 장면정보에로의 전환—생략 .....	373
제6절 번역에서의 장면정보의 색채적 의미에로의 전환 .....	394
제7절 번역에서의 정보론적 특징에 의한 주술어 도치문 .....	399
참고서·논문 목록 .....	412
후 기 .....	423